

여자(나리) 지정 연기

S#14. 현관 (저녁)

퇴근하는 주원을 반기는 나리에게 주원은 꽃다발 선물을 한다

주원: 요새 자기 스트레스 받아보이길래 사왔어

나리: (무표정으로 덤덤하게 꽃을 보며 이야기한다) 자기야... 완전 감동이야 사실 오늘도 기분

안 좋았는데 지금 너무 기분 좋아졌어

주원: (나리를 쳐다보지 않고 정면 응시) 다행이네. 저녁은?

나리: 옷 갈아입고 와. 먹자

S#9. 차 안 (저녁)

차에 타는 두 사람. 나리는 무의식적으로 목 부분을 만지다 목걸이가 없어진 것을 알아챈다.

매우 당황한 티를 내는 나리의 모습에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내던 주원도 나리의 목이 비어있

는 것을 발견한다.

나리: 미안해.. 이게 어디갔지 건든 적이 없는데...

주원: 하... 준지 몇 분 됐다고... 그 사이에...

나리: 내가 집 가서 다시 찾아볼게! 내 목에 채워준 건 맞지??

주원: 뭐? 지금 나까지 의심하는거야? 그것도 기억 안 나? 내가 얼마나 참아줘야 돼?

나리: 미안해...

주원: 어제도 니가 은행 업무 안 해서 난감했는지 알아? 회사 다니는 내가 해야겠어? 꼭 하루

에 하나씩 까먹어야 돼?

나리: 그것도 미안해...

주원: (한숨 쉬고)(눈을 반쯤 내리깔고 무표정으로 말한다) 팬찮아 (또 한숨) ...너무 속상해하지마

나리: ...고마워 진짜 자기밖에 없어 난

주원: 이런 기분으로 어디 못 가겠네 그치 다시 올라가자

나리: 갈 수 있어! 예약도 했다며!!

주원: 자기가 까먹어서 예약 안 됐잖아

나리: 자기가 했다며!

주원: (또 눈을 반쯤 내리깔고 무표정으로 말한다) 무슨 소리야 나리야(한숨 쉬며) 나 또 목소

리 커지기 싫어 빨리 가서 쉬자

차 문을 열고 나가는 주원과 혼란스러워 보이는 표정의 나리.